

## 미 증시, ISM 제조업지수 컨센 하회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

### SUMMARY

1. 시장 급락은 이번주 고용 보고서 확인, FOMC 금리인하 이후 다시 물가 재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반응
2. 장 시작 후 발표될 7월 JOLTS 구인건수, 7월 내구재주문, 베이지북 중요.
3. 금일에는 경기침체 우려 및 연준 정책 경로 불확실성에 하락 예상, 장중 엔달러 환율 움직임 주목

### 미국 증시 리뷰

3 일(화) 미국 증시는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 하회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대, 엔비디아(-9.5%) 낙폭 확대하며 지수에 부담, S&P500, 나스닥 기준 8월 3일 -3%대 하락 이후 최대낙폭 기록. (다우 -1.51%, S&P500 -2.12%, 나스닥 -3.26%, 러셀2000 -3.09%)

8월 ISM 제조업지수 47.2(예상 47.5, 전월 46.8)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신규주문 전월 47.4 → 44.6 으로 둔화, 재고지수 44.5 → 50.3 으로 상승, 구매물가 지수 52.9 → 54.0 으로 상승한 점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다만 고용지수는 43.4 → 46.0 로 상승. 미국 7월 건설지출은 MOM -0.3%(예상 0.1%, 전월 0.0%)로 예상치 하회했으나 6월 수치는 MOM -0.3% 에서 0.0%로 상향.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추정치는 3분기 경제성장률 QOQ 연율 2.0%로 제시, 지난주 2.5%로 상향되었다가 다시 0.5%p 하향. 이날 앞서 나온 ISM 8월 제조업 지수와 7월 건설지출 등을 반영한 결과, PCE 물가 증가율이 3.8%에서 3.3%로 하향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 실질 민간투자 증가율은 -0.1%에서 -0.6%로 하향.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ISM 제조업 지수 내 고용은 전월대비 개선되었으나, 신규주문 감소 + 물가지수 상승 조합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자극. 발표 이후 10년물 금리 3.8%대 재진입, 8월말에는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8월초와 유사하게 침체 우려에 기인. VIX 지수 8월 13일 이후 20pt 재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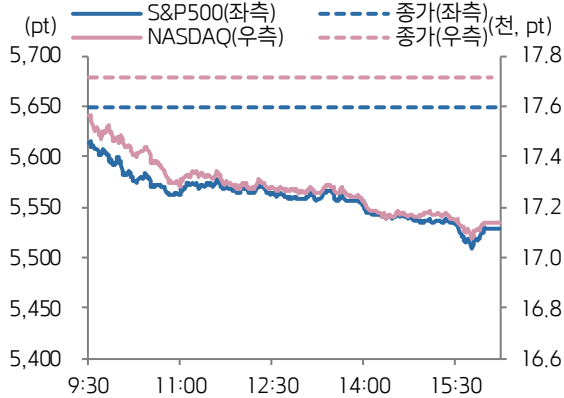
ISM 헤드라인 지수의 선행 지표인 신규주문은 감소, 재고지수는 증가하여 기준선 50을 상회하는 등 수요부진 우려 강화. 또한 투입 물가지수 상승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존재. 그러나 1) 대신 불확실성에 신규주문과 투자를 미루고 있고, 6대 제조업 섹터 중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신규주문이 증가했다는 코멘트, 2) 9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은 훼손되지 않는 점 감안 시 현재 반응은 과도하다고 판단. 미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지수 대비 제조업지수는 이미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책 경로에 변화를 미칠 명분이 적음. Fed Watch 인하 가능성 9월 25bp 61.0%로 변화 없었고 11월 50bp 45.9%로, 11월 빅스텝 가능성이 오히려 상승. 대신 이후로 신규주문을 미루고 있다는 ISM 코멘트와 같은 맥락.

심리적 요인으로 최근 10년간 S&P500 9월 수익률이 -2.3%로 연중 가장 저조했다는 점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 시장은 이번주 고용 보고서 확인, FOMC 금리인하 이후에는 다시 물가 재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반응한 것으로 판단. 침체 우려가 확대 되었으므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표 중요성 재차 상승. 장 시작 후 발표될 7월 JOLTS 구인건수(컨센서스 810만명, 전월 818.4만명), 7월 내구재주문(컨센서스 9.9%, 전월 9.9%), 베이지북에서 기업 생산활동과 고용에 대한 코멘트 중요.

3일(화) 국내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이차전지, 방산, 금융주 중심으로 강보합 출발했으나, 반도체 및 자동차 업종 낙폭 확대, 금투세 도입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 보도, 엔달러 강세 전환 등이 하방압력 가하며 하락 전환 마감 (KOSPI -0.61%, KOSDAQ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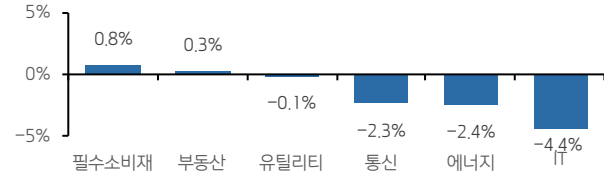
금일에는 경기침체 우려 및 연준 정책 경로 불확실성에 급락세를 보인 미증시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7.75%) 약세로 하락출발할 것으로 예상. 금투세 이슈, 엔달러 환율 변동성 등 코스닥 불안 요인 지속.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보완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과세대상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 가입 기간 무제한, 연 납입 가능 금액 3000만원으로 확대,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등 발의. 또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BOJ의 예상대로 회복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 이 여파로 엔달러 환율 147엔에서 145.85엔으로 하락, S&P 500 선물은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엔화에 연동되어 낙폭 확대. “경제 환경이 여전히 완화적이며, 7월 말 기준 금리 인상 이후에도 물가 조정 금리가 여전히 옴의 상태” 라고 언급. 8월 30일 발표된 일본 8월 CPI는 YOY 2.4%(예상 2.2%, 전월 2.2%), 실업률 2.7%(예상 2.5%, 전월 2.5%)로 예상치 모두 상회한 상태로 경기침체 내러티브가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엔달러 동향과 추후 데이터 확인 필요.

## S&amp;P500 &amp;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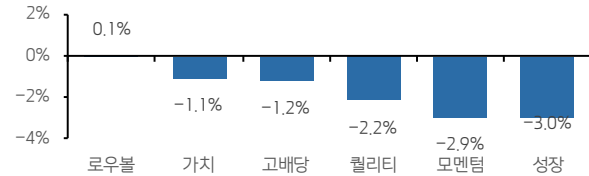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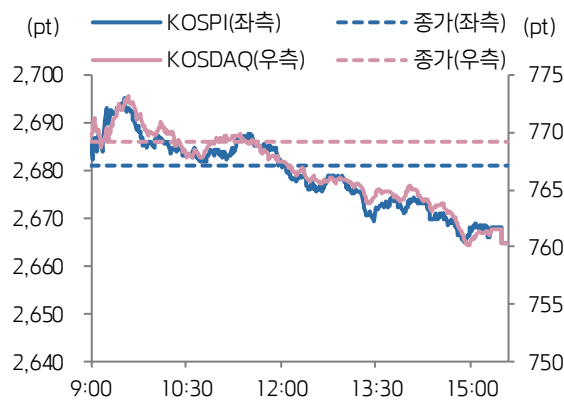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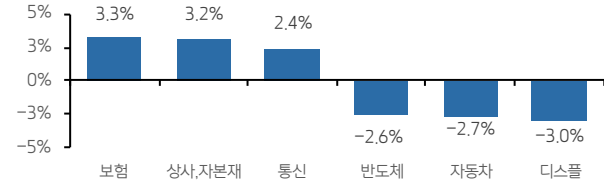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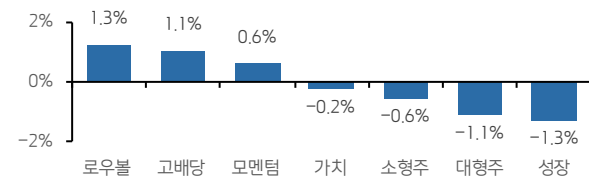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2.77	-2.72%	+16.15%	GM	48.41	-2.75%	+35.53%
마이크로소프트	409.44	-1.85%	+9.48%	일라이릴리	956.53	-0.36%	+64.89%
알파벳	157.36	-3.68%	+12.78%	월마트	77.17	-0.08%	+48.28%
메타	511.76	-1.83%	+44.88%	JP 모건	220.30	-2%	+31.8%
아마존	176.25	-1.26%	+16%	엑손모빌	115.47	-2.09%	+18.46%
테슬라	210.60	-1.64%	-15.24%	세브론	144.66	-2.22%	+0.14%
엔비디아	108.00	-9.53%	+118.11%	제너럴일렉트릭	77.17	-0.1%	+48.3%
브로드컴	152.79	-6.16%	+37.9%	캐터필러	340.24	-4.45%	+16.5%
AMD	136.94	-7.82%	-7.1%	보잉	161.02	-7.32%	-38.23%
마이크론	88.58	-7.96%	+3.99%	넥스트에라	79.93	-0.7%	+34.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64.63	-0.61%	+0.35%	USD/KRW	1,345.40	+0.52%	+4.46%
코스피 200	358.80	-0.91%	+0.23%	달러 지수	101.83	+0.17%	+0.49%
코스닥	760.37	-1.15%	-12.26%	EUR/USD	1.10	-0.26%	+0.04%
코스닥 150	1,280.99	-1.7%	-8.07%	USD/CNH	7.12	+0.07%	-0.07%
S&P500	5,528.93	-2.12%	+15.91%	USD/JPY	145.48	-0.98%	+3.15%
NASDAQ	17,136.30	-3.26%	+14.1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0,936.93	-1.51%	+8.62%	국고채 3년	2.980	-1.2bp	-16.5bp
VIX	20.72	+33.25%	+66.43%	국고채 10년	3.120	-0.5bp	-5.5bp
러셀 2000	2,149.21	-3.09%	+6.03%	미국 국채 2년	3.863	-5.3bp	-38.7bp
필라. 반도체	4,759.00	-7.75%	+13.98%	미국 국채 10년	3.831	-7.2bp	-4.8bp
다우 운송	15,859.25	-1.15%	-0.25%	미국 국채 30년	4.123	-7.3bp	+9.5bp
상해종합	2,802.98	-0.29%	-5.78%	독일 국채 10년	2.277	-6.1bp	+25.3bp
항셍 H	6,203.55	-0.13%	+7.5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2,555.44	-0.01%	+14.28%	WTI	70.34	-4.36%	-0.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75	-4.86%	-4.27%
Eurostoxx50	4,912.52	-1.22%	+8.65%	금	2,523.00	-0.18%	+16.8%
MSCI 전세계 지수	819.47	-1.63%	+12.72%	은	27.95	-2.71%	+16.05%
MSCI DM 지수	3,595.44	-1.75%	+13.45%	구리	403.20	-2.73%	+3.64%
MSCI EM 지수	1,090.17	-0.56%	+6.49%	BDI	1,919.00	+5.79%	-8.36%
MSCI 한국 ETF	63.24	-3.45%	-3.49%	옥수수	409.25	+2.06%	-18.7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6.75	+2.77%	-15.28%
비트코인	58,213.26	-1.34%	+36.95%	대두	1,012.00	+1.2%	-18.76%
이더리움	2,462.80	-3.61%	+7.91%	커피	242.80	-0.51%	+28.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